

규종여자가



[해제]

<규중여자가(閨中女子歌)>는 규방가사의 일종(一種)이다. 규중 여인의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계녀가사(誡女歌辭) 또는 교훈가(敎訓歌)로 분류된다. 본 가사는 두루마리에 세로로 필사되어 있으며, 한 행에는 13~14자의 한글로 기록되어, 총 193행 2,582자의 내용과 4행 45자의 부기(附記)로 되어 있다. 유교적 윤리관이 전편에 흐르고 문투는 한문투와 한글투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끝부분에는 “임신이월 초숨일 병기쓰다”라고 하여, 지은 때는 임신년 2월 3일(음력)이고 작자는 ‘병개’로, “희동국 삼철리의 경기도 만컨만은 아마도 조흔곳션 우리헝회 썬이로다”라고 하여 작자는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지역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화자인 규중 여자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였다. 즉 여자로 태어남, 혼사논의, 가을 하회지역 유람, 혼인, 봄철 화전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와 같이 산천경계를 유람하고자 하는 여자의 심리를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일반적인 규중여자와 상별된다.

[원문]

규중여자가

천심만민 허실적의 남조여자 삼겨서르
 거룩할스 우리부모 남조여조 분간업이
 오월뉴월 더운씨와 동지섯달 설상풍의
 나지면 업고안고 밤이면 품고놀제
 귀흠도 만이시고 익지중지 길너닐제
 침선방적 하난법과 사구고 허난도리
 주야로 교훈하여 곱기곱기 길으더니
 무정하다 이세월이 익인곳 바히업서
 어언간 춘몽갓치 심오심늑 당히서라
 두문불출 규중안의 김히안자 심각하니
 한심코 규문하여 부럽도다 남조들은
 팔도강산 조흔경괴 일일이 심방하여
 풍월짓고 놀건만은 슬푸다 우리여자
 초싱의 무삼일노 김고깃흔 규중안니
 감옥사리 어인일고
 규중의 밍상으로 구호허난 손님들은
 고산의 운문갓치 스방으로 모혀드려
 소진장의 구변으로 다정케 구훈할제
 아모고되 아모뵈은 멋살먹은 가랑잇고
 아모동네 아모집은 가별도 제일이요
 남조도 가랑인디 궁허이 선히허이
 그리로 완정허소
 이냥삼차 진권홀제 무정허다 우리부모
 셤션히 허락허야 강서의제 맛타온후

초레혁일 보시오니 심신이 불평하네
울화가 절노나고 고법을 엇지하리
수귀지심 긴축일식
세월이 신속하여 여연간 초일일식
아미을 맞친후의 칠보단장 곱기하고
서동부셔 마조서서 훈손레 훈잔술로
빅연가약 잇조하네 길겁고 길거워라
달적구 우난물의 요조숙여 안일년가
여자의 조분소건 부모슬하 잇조흠을
천연만연 거더니 신행택일 오난구나
어우와 동뉴들아 여자뉴형 고히하다
옛필종부 넷글자를 알고보면 난감하이
원부모 이형제을 피차간의 면출손야
세상의 원통함은 우리여조 쏘이로다
축일송몽 질기가드 일종춘몽 솜겉갓치
각부동서 헛터지면 이아니 셕셕할가
구탁입신 헛기전의 아무러나 노라보시
잇씩난 어나썸고 쉼팔월 기망이라
금풍이 소슴더니 울민흔 남서산의
단풍이 곱기드러 식식이 아롱진다
장농송조 여러노코 조흔의복 골라니여
씩을맞추 단장홀제 신식법단 저구리며
옥식비단 치마로다
은봉치 연봉잠은 머리우의 질너두고
옥지환 근반지는 양슈간의 갈나끼고
옥약목 겹버선의 연리화 립시난다
시비불너 압서우고 승지차조 길잡을제
히동국 삼철리의 경기도 만컨만은
아마도 조흔곳션 우리헛회 쏘이로다
삼삼오오 작반하여 썸썸옥슈 서로잡고
석교상 조분길이 팔션여의 티도갓치
단포조로 거름걸어 만송정 썸나셔서
부용되하 비을노와 약주소주 갓들실고
빈공자의 칠월증과 소자침의 적벽부를
쌍쌍이 외와니며 상하로 비회홀제
소동헛겨 안쥬노와 일비일비 취흔후의
부용디 올라서니
기암 귀석은 전후의 첩첩하고

청송 녹죽은 좌우로 울민한디
비거비리 퍽혹들은
쌍쌍이 깃드린다
결남육연 양선정은 권설하고 화려하여
서로뉴씩 와연홀고 양전당 추효당은
남북촌의 놉피소사 조용이 진실하이
인격은 지형이다
점지의 나신사람 남여간의 버면허리
절통하다 우리등은 차칭의 무슴죄로
여즈로 삼거나서 경기조흔 이강산을
일이리 허직하고 옛필중부 범을쏘츠
심산벽쳐 어이가리
곰곰이 싱각하이 여즈유흥 고히허니
아서라 동유들아 슈회말고 흥을니워
남산딴로 올라가시
손을잡고 내려와서 비을타고 올라가니
경기도 조견이와 만업이 웅풍하여
식식이 단풍드러 화류삼월 불면하다
어우와 동뉴들라 여즈신이 원통하나
슈회말고 안심하야 옥빈흥안 늘지마즈
흔화하고 당환홀제 혼산스 면복소리
은은히 들이난디 강슈난 침침하고
석양이 직을넘어 울울지회 억제하고
남산딴을 허적하여 기약으로 견게할제
남선딴야 잘잇거라 부용딴야 잘일거나
다시볼날 인나이러
우리비록 여자오나 풍정은 잇다만은
단풍구경 허자하이 송심딴야 이만일다
구획입신 허엿드가 조흔기회 다시어더
면영춘 반거와서 화전노름 업실손야
이리저리 허직하고 집으로 도라와서
신힝힝구 차리자이 신신이 불평하여
아모런줄 몰나더니 어언간의 신힝일식
원부모 이형제와 삼사오륙 칠팔촌을
역역히 송별하고 구획으로 향회갈제
나난눈물 억제하고 구획향중 도라드이
아난사람 누기든고 만인중 죠회석의
잠관돌너 살퍼보니 반가워라 나의군자

속명이고 득정하여 날을보고 웃난모양
 길겁고 반가우나 변화지지 심중타가
 벽강공촌 드러안자 산슈서러 엇지하나
 달밭고 잠안올씨 고향싱각 언술하다
 야속홀사 우리군자 바독장괴 힘을써서
 쥬야로 노노라고 조조상명 무참호오니
 그아이 박절한가
 그럭저럭 지닌다가 정이슴월 도라드러
 잠농이나 힘을쓰자
 누눈이 병넙후로 마리마리 길너니여
 당실당실 지은곳치 황스씩스 황홀하다
 은자식의 곱기올려 구구비 썩서닐식
 첫지구비 쓴너니야 우리구고 오설말식
 슈복강녕 슈을눗코 돌지구비 쓴너니여
 우리군조 오설말제 승순군조 화순하여
 퍽년회로 슈을눗코 셋지구비 쓴너니여
 우리따달 오설말제 부귀다남 슈을눗코
 세세의복 지은후의 말지구비 쓴너니여
 나의의복 말아닐제 곱기곱기 영식하니
 황스축씩 좇타만은 우리명쥬 당할손가
 오월뉴월 도라들지 한길두길 긴숨딕을
 곱기곱기 벗니여 올오리자서 니고닐지
 고향싱각 울울해야 월하의 홀로안조
 노리검 하다보니 빈공조의 칠월장을
 너나너가 다외우고 등왕각셔 적벽부를
 제제이 워왓구나
 아서나 너일이야 구획의 민인몸이
 고향싱각 간절하나 임이로 할슈이나
 울울지회 역지하고 알들이 썩서니여
 불일성지 썩서니니 뉴막의 씨솔이야
 너빋쫓타 자랑마루 우리만오 당홀손야
 구비구비 쓴어니여 시원하기 오설말제
 외국후단 부러마루 우리만오 제일일식
 유월염천 덩다회도 더우을 니그하리
 이른자미 썩잇슬야
 칠월유화 나리난디 구월수의 지어니야
 시월국화 니모르니 이도또흔 니덕일식
 위로해도 저집여조 기흐음도 썩이엄니

마리우의 삼돌것다
 설광우의 면가락은 잇회삼연 무것던가
 쓰시름도 고이혀다
 몽송몽송 횡쥬치마 천연만연 입엇는가
 쓰실음도 짝이업늬
 칠연딤환 물리업셔 못씨너서 그러헌가
 구연홍슈 물지거던 장마췌거 바리난가
 험벽험벽 저머리는 덩덕시가 벼절하고
 널고췌은 저안면은 싸마귀가 벼절하늬
 덩돌하다 그집남정 기울음을 모르고서
 친구만늬 허난마리 안회조랑 췌이로당
 위습고 절충일식
 여조의 척임이되 턱님턱스 시승사름
 니척여조 췌을바다 봉제스의 정성하고
 접빈각의 민첩하야 승순군자 화순하미
 여자의 본형이다 적님망적 힘을써서
 군자의 사시절복 곱기기워 회동헌후
 춘삼월 조흠씨의 소풍도 허런이와
 화전노름 업슬손야
 그러나 저집여자 췌그름을 모르고서
 압셔서 췌적인양 눈가주고 불슈업늬
 거록홀사 우리구고 화전노름 췌선하어
 놀로가나 하고조니 반갑고 반가와르
 남북촌의 통기하고 상하동의 벼절불너
 허로풍뉴 승판하늬 빅반이 낭조하고
 동자불너 읍서우고 팔선여의 턱도로서
 단포자로 거름거리 아미산을 올라서니
 좌우구경 무궁하다 우리하회 당홀손야
 그러나 재미부쳐 화적을 췌기열지
 옥슈을 붓젓드러 두건화 췌거니야
 허우씨 덕정부의 천상은하 비러드가
 당연산의 늦빛갓헌 갈우췌철 두로홍회
 돌기돌기 췌어닐지 모양은 반드리요
 향기난 첫치로다
 절나평양 밀비지와 낙양성동 도화적이
 아모리 췌타하도 향기나고 맛난엄석
 우리화적 당홀손가
 허무제의 승노반과 동방삭의 군산췌들

우리엄석 당할손가

취흥이 도도하여 좌우로 비회터니

용문사 면복소리 은은히 들이더니

석양이 직산하야 구택으로 도라오니

고향심각 시로와라

임신이월 초승일 병기쓰다

성즈올치 못하니 보시난이 곤쳐

보시고 비소 마실가 남승

언지나 눈물되 울고 웃습스

[현대역]

규중여자가

천생만민(天生萬民)1) 하실적에 남자여자 삼겼어라2)
 거룩할사 우리부모 남자여자 분간3)없이
 오월유월 더운 때와 동지선달 설상풍(雪霜風)4)에
 낮이면 업고 안고 밤이면 품고 놀 제
 귀염도 많으시고 애지중지(愛之重之) 길러낼 제
 침선방적(針線紡績) 하는 법과 사구고(事舅姑)5) 하는 도리
 주야로 교훈하여 곱게곱게 기르더니
 무정하다 이 세월이 메인 곳 바이6) 없어
 어언간(於焉間)7) 춘몽(春夢)같이 심오심욕 당했어라
 두문불출(杜門不出) 규중(閨中) 안에 깊이 앉아 생각하니
 한심코 규문하네
 부럽도다 남자들은 팔도강산 좋은 경개(景概)
 일일이 심방(尋訪)하여 풍월(風月)짓고 놀건만은
 슬프다 우리 여자 차생(此生)의 무슨 일로
 깊고 깊은 규중 안에 감옥살이 어인 일고
 규중의 입상으로 구호(舊好)8)하는 손님들은
 고산(高山)에 운문(雲紋)9)같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소진 장의(蘇秦, 張儀)10) 구변(口辯)으로 다정하게 구혼(求婚)할 제
 아무 곳에 아무 맥은 몇 살 먹은 가랑(佳郎)11) 있고
 아무 동네 아무 집은 가벌(家閥)12)도 제일이요
 낭재(郎材)13)도 가랑(佳郎)인데 궁(窮)한 이 선호하니
 그리로 완정(完定)하소
 이 양삼차(兩三次) 진권(進勸)할제 무정하다 우리 부모
 선선히 허락하여 강서의제 말아온 후
 초례(醮禮) 택일(擇日) 보시오니 심신(心身)이 불평(不平)하네
 율화가 절로 나고 고법(古法)을 어찌하리
 수구지심(首邱之心) 경축일세
 세월이 신속하여 어언간 초일(醮日)14)일세
 아미(蛾眉)를 마친 후에15) 칠보 단장(七寶丹粧) 곱게 하고
 서동부서(西東夫壻)16) 마주서서 한 손에 한잔 술로
 백년가약(百年佳約) 맺자하니 즐겁고 즐거워라
 달적구 우는 물에 요조숙녀(窈窕淑女) 아닐런가
 여자에 좁은 소견 부모 슬하 있자 함을
 천년만년 길더니17) 신행(新行) 택일(擇日) 오는구나
 여와 동류(同流)들아 여자 유행(有行)18) 곱게 하다

여필종부(女必從夫) 네 글자를 알고 보면 난감하네
 원부모 이형제(異兄弟)를 피차간에 면할쓰가
 세상에 원통함은 우리 여자뿐이로다
 축일(祝日) 상몽(祥夢) 길게 가다 일장춘몽(一場春夢) 꿈결 같이
 각부(各部) 동서(東西) 흠어지면 이 아니 섭섭할까
 구택입신(舅宅入身) 하기 전에 아무렇게 놀아보세
 이때는 어느 땐가 추(秋) 팔월(八月) 기망(既望)¹⁹이라
 금풍(金風)²⁰이 소삼(蕭森)하니²¹ 울밀(鬱密)한 남서산에
 단풍(丹楓)이 곱게 들어 색색(色色)이 아롱진다
 장롱(櫥籠) 상자 열어놓고 좋은 의복 골라내어
 때를 맞춰 단장할 제 신식 법단(法緞)²² 저고리며
 옥색 비단 치마로다
 은봉채(銀鳳釵)²³ 연봉잠(蓮峰簪)²⁴은 머리 위에 질러 두고
 옥지환(玉指環) 금반지는 양수(兩手) 간에 갈라 끼고
 옥양목(玉洋木)²⁵ 겹버선에 연리화 맵시난다
 시비(侍婢) 불러 앞세우고 승지(勝地) 찾아 길잡을 제
 해동국(海東國) 삼천리에 경개(景概)도 많건마는
 아마도 좋은 곳은 우리 하회(河回)²⁶ 뿐이로다
 삼삼오오(三三五五) 작반(作伴)하여²⁷ 섬섬옥수(纖纖玉手) 서로 잡고
 석교상(石橋上) 좁은 길에 팔선녀(八仙女)의 태도(態度)같이
 단표자(單瓢子)로 걸음 걸어 만송정(萬松亭)²⁸ 씩 나서서
 부용대하(芙蓉臺下)²⁹ 배를 놀아 약주(藥酒) 소주(燒酒) 가득 싣고
 빈공자(鬮公子)의 칠월장(七月章)³⁰과 소자첨(蘇子瞻)³¹의 적벽부(赤壁賦)를
 쌍쌍이 외워내며 상하로 배회(徘徊)할 제
 소동(小童) 행거(行車) 안주 놀아 일배 일배(一杯一杯) 취한 후에
 부용대 올라서니
 기암괴석(奇巖怪石)은 전후(前後)에 첩첩(疊疊)하고
 청송녹죽(靑松綠竹)은 좌우(左右)로 울밀(鬱密)한대
 비거비래(飛去飛來) 백학(白鶴)들은
 쌍쌍이 깃들인다
 결람옥연 양선정은 긴실하고 화려하여
 서로 유택 완연하고 양전당 추효당은
 남북촌에 높이 솟아 조용히 진설(陳設)하니
 인격은 지령이라³²
 점지하여 나신 사람 남녀간에 변변하리
 절통(切痛)하다 우리들은 차생(此生)에 무슨 죄로
 여자로 생겨나서 경기(景幾) 좋은 이 강산을
 일일이 하직하고 여필종부(女必從夫) 법을 쫓아

심산벽처(深山僻處) 어이 가리
 곰곰이 생각하니 여자(女子) 유행(有行) 곱게 하네
 아서라 동류(同類)들아 후회 말고 흥을 내어
 남산대로 올라가세
 손을 잡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올라가니
 경기(景幾)도 즐거니와 만업(萬業)이 웅풍(雄豐)하여
 색색이 단풍들어 화류삼월(花柳三月) 불면하다
 어와 동류(同類)들아 여자신(女子身)이 원통하나
 후회말고 안심하여 옥빈홍안(玉鬢紅顏)³³ 늘지마소
 흔화(欣和)하고 당환(當歡)할제 한산사 면북 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강수(江水)는 침침(沈沈)하고
 석양이 재를 넘어 울울지회 억제하고
 남산대를 하직하여 기약으로 경계할 제
 남선대야 잘 있거라 부용대야 잘 있거라
 다시 볼 날 있느니라
 우리 비록 여자이나 풍정(風情)은 있다마는
 단풍 구경 하자 하니 상심되어 이만일다
 구택(舅宅) 입신(立身) 하였다가 좋은 기회 다시 얻어
 면 영춘(迎春) 반가워서 화전놀이 없을쏘나
 이리저리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행(新行) 행구(行具) 차리자니 심신(心身)이 불평(不平)하여
 어떤 줄을 몰랐더니 어연간에 신행(新行)일세
 원부모 이형제(異兄弟)와 삼사오륙 칠팔촌을
 역력(歷歷)히 상별(相別)하고 구택(舅宅)으로 향해갈 제
 나는 눈물 억제하고 구택(舅宅) 향중(鄉中) 돌아드니
 아는 사람 누구던고 만인중(萬人中) 조회석(朝會席)에
 잠깐 들려 살펴보니 반가워라 나의 군자³⁴
 숙명인가 다정하고 나를 보고 웃는 모양
 즐겁고 반가우나 변화지지 생장타가
 벽강(壁江)³⁵ 궁촌(窮村) 들어 앉아 산수 설어³⁶ 어찌하나
 달 밝고 잠 안올 때 고향생각 언술(言述)하다
 야속할사 우리 군자 바둑 장기 힘을 써서
 주야로 노느라고 자주 상면(相面) 문안하니
 그 아니 박절(迫切)한가
 그럭저럭 지내다가 정이삼월 돌아들어
 잠농(蠶農)이나 힘을 쓰자
 누에 눈이 병립(竝立) 후로 마리 마리 길러 내어
 당실당실 지은 고치 황사(黃絲) 백사(白絲) 황홀하다

연자새에 곱게 올려 구구이 짜서 널세
 첫째 구비 끊어내어 우리 구고(舅姑) 옷을 말 제
 수복강녕 수를 놓고 둘째 구비 끊어 내어
 우리 군자 옷을 말 제 승순(承順) 군자 화순(和順)하여
 백년해로(百年偕老) 수를 놓고 둘째 구비 끊어 내어
 우리 딸들 옷을 말 제 부귀(富貴) 다남(多男) 수를 놓고
 세세(歲歲) 의복 지은 후에 말째37) 구비 끊어 내어
 나의 의복 말아 널 제 곱게 곱게 염색하니
 황사(黃絲) 축백 좋다마는 우리 명주 당할손가
 오월 유월 돌아들 제 한 길 두 길 긴 삼대38)를
 곱게 곱게 벗겨 내어 올오리 자서39) 내고널 제
 고향생각 울울(鬱鬱)하여 월하(月下)에 홀로 앉아
 노래소리 하다 보니 빈공자의 칠월장을
 너나 내가 다 외우고 등왕각서40) 적벽부를
 제제이41) 외웠구나
 아서라 내일이야 구택(舅宅)에 메인 몸이
 고향생각 간절하나 임으로 할 수 있나
 울울지회(鬱鬱之懷) 억제하고 알뜰이 자서내어
 불일성지(不日成之)42) 짜아 내니 누막(樓幕)43)의 꼬꼬리아
 너 빛 좋다 자랑마라 우리 마노 당할쏘나
 구비 구비 끊어내어 시원하게 옷을 말 제
 외국하단 부러마라 우리 마노 제일일세
 유월 염천(炎天) 덥다 해도 더위를 내그하리
 이런 재미 또 있을까
 칠월유화(七月流火)44) 나리는데 구월수의(九月授衣)45) 지어내어46)
 시월국화 내 모르니 이도 또한 내덕일세
 위로해도 저집 여자 귀하움도 짝이 없네
 머리 위에 상 들켰다
 설강47) 위에 면가락은 여태 상연 묻었던가
 그으름도 괴이하다
 몽똥몽똥 행주치마 천년만년 입었던가
 그으름도 짝이 없네
 칠년대환(七年大旱) 물이 없어 못 씻어서 그러한가
 구년홍수(九年洪水) 물 젖거든 장마빗겨 바렸는가
 흠뻑흠뻑 저 머리는 편득 새가 벗을 하고
 넓고 검은 저 안면은 까마귀가 벗을 하네
 당돌하다 그 집 남정 기굴(奇崛)48)음을 모르고서
 친구 만나 하는 말이 아내 자랑 뿐이로다

우습고 절창(絶唱)49)일세
 여자의 책임이되 태님태사 세상사람
 내칙(內則) 여자 본을 받아 봉제사(奉祭祀)에 정성하고
 접빈객(接賓客)에 민첩하여 승순(承順) 군자(君子) 화순(和順)함이
 여자의 본행(本行)이다 적임(適任) 방적(紡績) 힘을 써서
 군자의 사시절복(四時節服) 곱게 기워 회동(會同)한 후
 춘삼월(春三月) 좋은 때에 소풍(道風)도 하려니와
 화전(花煎) 놀음 없을쏘냐
 그러나 저 집 여자 부끄럼을 모르고서
 앞서서 주책인양(주적거리는 모양) 눈 가지고 볼 수 없네
 거룩할사 우리 구고(舅姑) 화전(花煎) 놀음 주선(周旋)하여
 놀러가나 하고자니 반갑고 반가워라
 남북촌(南北村)에 통기(通寄)50)하고 상하동(上下洞)에 벗을 불러
 하루 풍류(風流) 승판하니 배반이 낭자하고
 동자(童子) 불러 앞세우고 팔선녀(八仙女)의 태도로서
 단표자(單瓢子)51)로 걸음 걸어 아미산(52)을 올라서니
 좌우 구경 무궁하다 우리 하회 당할쓴가
 그러나 재미 붙여 화적을 끌어낼 제
 옥수(玉手)를 바쳐 들어 두견화(杜鵑花) 꺾어내어
 하우씨(夏禹氏)53) 대정부의 천상(天上) 은하(銀河) 빌어다가
 당연산의 누비(54)같은 갈우꽃을 두루 함에
 둘레둘레 끊어낼 제 모양은 반달이요
 향기는 첫째로다
 전라(全羅) 평양(平壤) 밀비지와 낙양(洛陽) 성동(城東) 도화전(桃花煎)이
 아무리 좋다 해도 향기 나고 맛난 음식
 우리 화전(花煎) 당할쓴가
 한무제(漢武帝)의 승로반(承露盤)55)과 동방삭(東方朔)의 군산주(君山酒)56)들
 우리 음식 당할쓴가
 취흥(醉興)이 도도(滔滔)하여 좌우로 배회(徘徊)터니
 용문사(龍門寺)57) 면복소리 은은히 들리더니
 석양이 재산(在山)하여 구택(舅宅)으로 돌아오니
 고향 생각 새로워라
 임신(壬申) 이월(二月) 초삼일 병개 쓰다
 성자(成字) 옳지 못하니 보시는 이 고쳐
 보시고 비소(非笑) 마실가 남상
 언제나 눈물되 울고 우습다

[각주]

- 1) 천생만민(天生萬民) : 하늘이 낸 만백성이란 뜻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
- 2) 삼기다 : 생기게 하다.
- 3) 분간(分揀) :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다.
- 4) 설상풍(雪霜風) : ‘눈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가난과 고생’을 말함.
- 5) 사구고(事舅姑) : ‘구고(舅姑)’는 ‘시부모’이므로 ‘시부모를 섬기다’는 뜻이다.
- 6) 바이 : 아주, 전혀.
- 7) 어언간 (於焉間) :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 8) 구호(舊好) : 예전부터 다정하게 지내던 사이.
- 9) 운문(雲紋) : 구름모양.
- 10) 소진 장의(蘇秦.張儀) : 소진과 장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의 謀士(모사) 소진, 장의처럼 言辯(언변)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 11) 가랑(佳郎) : 참한 소년. 재주가 있는 훌륭한 신랑.
- 12) 가벌 (家閥) : 한 집안의 사회적 지위.
- 13) 낭재(郎材) : 신랑감.
- 14) 초일(醮日) : 초례일(醮禮日).
- 15) 아미(蛾眉)를 마친 후에 : 눈썹을 그린 후에.
- 16) 서동부서(西東夫壻) : 혼례식에서 서쪽에는 신부가 동쪽에는 신랑이 서다.
- 17) 길더니 : 원문에 “겨더니”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방언에서 ‘길다’의 뜻으로 쓰인다.
- 18) 유행(有行) : 행실.
- 19) 기망(既望) : 음력으로 매달 열엿셋날.
- 20) 금풍 (金風) : ‘가을바람’을 달리 이르는 말. 오행에 따르면 가을은 금(金)에 해당한다는 데에서 이르는 말.
- 21) 소삼하니(蕭森--) : 마음이 쓸쓸하고 을씨년스럽다.
- 22) 법단(法緞) : 비단의 하나. 모본단보다 무늬가 잘고 두꺼우며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
- 23) 은봉채(銀鳳釵) : 봉의 머리 모양으로 꼭지를 만든 은비녀.
- 24) 연봉잠(蓮峰簪) : 여자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하나. 금붙이로 막 피려는 연꽃의 봉오리를 본떠 만들고 산호 구슬을 물린다.
- 25) 옥양목(玉洋木) : 생목보다 발이 고운 무명. 빛이 희고 얇다.
- 26) 하회(河回) : 안동 하회마을.
- 27) 작반(作伴)하여 : 동행자나 동무로 삼아.
- 28) 만송정(萬松亭)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마을 122호) 북서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넓은 모래 퇴적층에 있는 소나무숲이다.
- 29) 부용대(芙蓉臺)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안동하회마을의 서북쪽 강 건너 광덕리 소나무 숲 옆에 있는 해발 64m인 절벽이다.
- 30) 빈공자(邇公子)의 칠월장(七月章) : 시경(詩經) 의 「빈풍칠월장(邇風七月章)」을 가리킨 말.
- 31) 소식(蘇軾 1036~1101) :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당송팔대가 중 한 사람. 자는 자瞻(子瞻), 호는 동파(東坡), 시는 문충(文忠).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여 해남도에 유배되었다가 죽음.

- 32) 인격은 지령이라 : 영험하고 빼어난 지역에서 인걸이 태어난다는 인걸지령(人傑地靈)을 말함인 듯.
- 33) 옥빈홍안(玉鬢紅顏) :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 34) 나의 군자 : 서방님.
- 35) 壁江(벽강) : 반벽강산(半壁江山)의 준말.
- 36) 설어 : ‘낮설다’의 의미.
- 37) 말째 : 피륙의 끝단.
- 38) 삼대 : 삼의 줄기.
- 39) 자서 : 실오리를 뽑아내어.
- 40) 등왕각서(滕王閣序) : 중국 당(唐)의 왕발(王勃 : 649~676)이 지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 원 제목은 《추일등홍부등왕각전별서(秋日登洪符滕王閣錢別序)》 《등왕각시서(滕王閣詩序)》라고도 한다. 등왕각은 그 옛터가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에 있다.
- 41) 제제이 : 깔꿈이.
- 42) 불일성지(不日成之) : 며칠 안 걸려서 이룸.
- 43) 누막(樓幕) : 누각의 장막.
- 44) 七月流火(칠월류화) : 칠월이면 대화성이 기울어 흐르고.
- 45) 九月授衣(구월수의) : 구월이면 추워서 날 옷을 준비한다
- 46) 지어내어 : 빈풍(飀風) 칠월장에서 인용.
- 47) 설강 : ‘그릇을 얹어 두는 곳’을 이르는 경상도 사투리.
- 48) 기굴(奇崛) : 외모가 남다르고 허우대가 크다.
- 49) 절창(絶唱) : 여기서는 ‘뛰어난 말(이야기)’이다.
- 50) 통기(通寄/通奇) : 통지(通知)와 같은 말.
- 51) 단표자(單瓢子) : 한 개의 표주박.
- 52) 아미산 : 하회에 있는 칠현산을 아미산이라 불렀다.
- 53)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을 이르는 말.
- 54) 누비 :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 지게 박는 바느질.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 55) 승로반(承露盤) : 불로장생 할 수 있는 천로(天露)를 받기 위하여 한무제가 세운 동반(銅盤).
- 56) 군산주 :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 “군산(君山)에는 좋은 술 몇 말이 있었는데,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 무제(武帝)가 난파(欒巴)를 보내어 결국 이 술을 얻었다. 동방삭이 ‘신이 이 술을 알아야겠으니 보여 주십시오’라고 하고서, 이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 57) 용문사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龍門面) 내지리 용문산에 있는 절.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